

보도	2026.8.24.(월) 15:00	배포	2026.8.24.(월)
----	---------------------	----	---------------

담당부서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책임자	팀 장	황찬홍	(02-3145-5190)
		담당자	선 임	안석원	(02-3145-5185)

퇴직연금 실물이전 고도화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최 -

- 주요 내용 -

- 【 퇴직연금 실물이전 실적 및 한계 】**
- ◆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24.10월말) 이후 '26.6월말까지 15.9조원(일평균 261억원)이 이전되었고, '26.상반기 이전 규모는 6.9조원으로 전년 동기(3.2조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서비스 이용 확대 중**
 - 권역별로 은행→증권 5.2조원 이전되는 등 증권 권역으로의 **머니 무브가 뚜렷하며** 은행→은행 4.5조원 이전 등 권역내 움직임도 활발
 - ◆ 다만, 현재까지는 **동일한 제도(DB ↔ DB, DC ↔ DC, IRP ↔ IRP)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여 DC→타사IRP로 이전이 어려웠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경우 **이전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 불편 요소가 존재**
- 【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운영 】**
- ◆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제도 고도화**를 위해 금감원 주관으로 예탁원, 협회, 한증금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23명)과 **실물이전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8.24.)하였으며,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속 노력** 예정

1. 퇴직연금 실물이전 실적 및 한계

□ **(실적)**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24.10.31.) 이후 '26.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9조원(25만여건)으로 일평균 261억원(409건)이 이전되었습니다.

*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 촉진을 유도

- 반기별 실물이전 금액은 '26년 상반기에만 6.9조원으로 전년 동기 (3.2조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입자의 실물이전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24.하) 1.9조원 → ('25.상) 3.2조원 → ('25.하) 3.8조원 → ('26.상) 6.9조원

- 권역별로 은행→증권 이전이 5.2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하여 은행→증권으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했으며, 은행→은행으로의 이동이 4.5조원으로 은행권역 내 이동도 높은 비중(28%)을 차지했습니다.

업권별 실물이전 규모 및 유·출입 현황('24.10.31. ~ '26.6.30.)

(단위 : 억원)

업권간 실물이전 규모					업권별 유·출입 규모*				
수관 이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업권	유입 (동업권내제외)	유출 (동업권내제외)	순유입	
은행	44,817	52,225	4,457	101,499	은행	61,785	(16,968)	101,499	(56,682) △39,714
증권	12,984	26,061	5,251	44,296	증권	85,809	(59,748)	44,296	(18,235) +41,513
보험	3,984	7,523	1,397	12,903	보험	11,105	(9,708)	12,903	(11,507) △1,799
합계	61,785	85,809	11,105	158,699	합계	158,699	(86,424)	158,699	(86,424) -

* 동일 업권내 유·출입 포함 (예시 : 은행 유입액 = 타 은행, 증권,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

** (괄호안) 동일 업권내 유·출입 제외 (예시 : 은행 유입액 = 증권,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

- 제도별로 DB는 증권사에서 은행 및 보험사로, DC와 IRP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제도별 실물이전 유·출입 현황('24.10.31. ~ '26.6.30.)

(단위 : 억원)

업권	DB			DC			IRP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은행	28,346	24,702	+3,644	18,605	34,420	△15,815	14,834	42,378	△27,544
증권	3,911	12,891	△8,980	29,172	9,104	+20,068	52,727	22,301	+30,426
보험	10,555	5,219	+5,336	415	4,668	△4,253	134	3,016	△2,882
합계	42,812	42,812	-	48,192	48,192	-	67,695	67,695	-

-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 6.8조원, DC 4.8조원, DB 4.3조원 순으로, IRP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물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계)** 현행 실물이전은 동일 제도 내(DB ↔ DB, DC ↔ DC, IRP ↔ IRP)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편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되는 등 실물이전을 제약하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물이전 과정에서 **이전 의사 확인**에 대해 **녹취를 의무화**하여 이전 절차가 지연되거나, 가입자에게 명확한 **이전 취소/거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실물이전 서비스 개선을 위한 TF 개최 및 향후계획

- **(개요)** '26.8.24.(월),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예탁결제원, 협회, 한국증권금융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TF **킵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Kick-Off 회의 개요

- **일 시** : '26.8.24.(월) 15:00 ~ 17:00
- **장 소** : 금융감독원 회의실
- **참 여** :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협회(은행, 금투, 생보, 손보, 저축은행), 한국증권금융 및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

- **(추진과제)** 제도간 이전이 불가하거나 환매중단펀드 이전 제한 등 소비자 불편 해소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일괄 개선**을 추진합니다.
 -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도록 논의하였습니다.
 - 녹취 외 안전한 방식의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 등을 강구하고,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 **(향후계획)** TF 킵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27년까지 TF를 완료하여 더 많은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퇴직연금 실물이전 현황통계 ('24.10.31. ~ '26.6.30.)

※ 퇴직연금 사업자별(이관회사 기준) 실물이전 서비스에 따른 이전 결과를 합산

(예시 : A은행 → B은행 : 은행(이관) → 은행(수관) / A은행 → C증권 : 은행(이관) → 증권(수관))

【 업권간 실물이전 규모 (억원) 】

제도 전체(DB+DC+IRP)					DB				
이관 \ 수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이관 \ 수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44,817	52,225	4,457	101,499	은행	19,241	1,347	4,114	24,702
증권	12,984	26,061	5,251	44,296	증권	6,223	1,542	5,126	12,891
보험	3,984	7,523	1,397	12,903	보험	2,882	1,021	1,316	5,219
합계	61,785	85,809	11,105	158,699	합계	28,346	3,911	10,555	42,812

DC					IRP				
이관 \ 수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이관 \ 수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16,333	17,798	289	34,420	은행	9,244	33,079	55	42,378
증권	1,675	7,348	81	9,104	증권	5,086	17,171	44	22,301
보험	597	4,025	46	4,668	보험	504	2,477	35	3,016
합계	18,605	29,172	415	48,192	합계	14,834	52,727	134	67,695

【 업권간 실물이전 건수 (건) 】

제도 전체(DB+DC+IRP)					DB				
이관 \ 수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이관 \ 수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99,467	95,848	823	196,138	은행	2,816	129	96	3,041
증권	8,548	34,575	203	43,326	증권	305	68	63	436
보험	1,754	6,664	148	8,566	보험	121	39	28	188
합계	109,769	137,087	1,174	248,030	합계	3,242	236	187	3,665

DC					IRP				
이관 \ 수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이관 \ 수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69,756	19,321	514	89,591	은행	26,895	76,398	213	103,506
증권	1,931	5,049	64	7,044	증권	6,312	29,458	76	35,846
보험	1,132	4,226	109	5,467	보험	501	2,399	11	2,911
합계	72,819	28,596	687	102,102	합계	33,708	108,255	300	142,263

※ 동일 업권내 유·출입 포함

(예시 : 은행 유입액 = 타 은행, 증권,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

【 업권별 실물이전 유·출입 규모 (억원) 】

업권	유입		유출		순유입
		(同업권내제외*)		(同업권내제외*)	
은행	61,785	(16,968)	101,499	(56,682)	△39,714
증권	85,809	(59,748)	44,296	(18,235)	+41,513
보험	11,105	(9,708)	12,903	(11,507)	△1,799
합계	158,699	(86,424)	158,699	(86,424)	-

* 동일 업권내 유·출입 제외 (예시 : 은행 유입액 = 증권,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

【 제도별 실물이전 유·출입 규모 (억원) 】

업권	DB			DC			IRP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은행	28,346	24,702	+3,644	18,605	34,420	△15,815	14,834	42,378	△27,544
증권	3,911	12,891	△8,980	29,172	9,104	+20,068	52,727	22,301	+30,426
보험	10,555	5,219	+5,336	415	4,668	△4,253	134	3,016	△2,882
합계	42,812	42,812	-	48,192	48,192	-	67,695	67,695	-